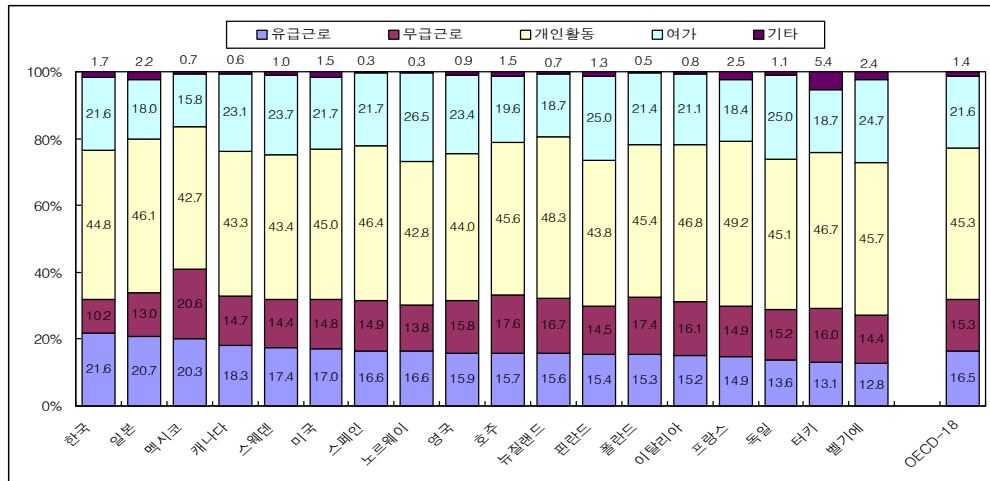


OECD 회원국의 여가시간과 삶의 질

- OECD 18개 회원국 국민들(2006년 기준, 15세 이상)의 여가시간을 보면, 평균 21.6%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21.6%(하루 24시간 중 5.2시간)와 동일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여가시간은 미국, 스페인, 폴란드 등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노르웨이(6.4시간), 독일·핀란드(6.0시간), 벨기에(5.9시간) 등의 국가에 비교하면 낮은 수준임(그림 1 참조).
 - 여가시간과 개인활동 시간을 조정하여 구한 “포괄적 여가시간”을 적용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하루 24시간 중 23.7%를 여가활동에 소요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비교대상 OECD 회원국 평균(24.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OECD, 2009 참조).

[그림 1] OECD 회원국의 근로와 여가시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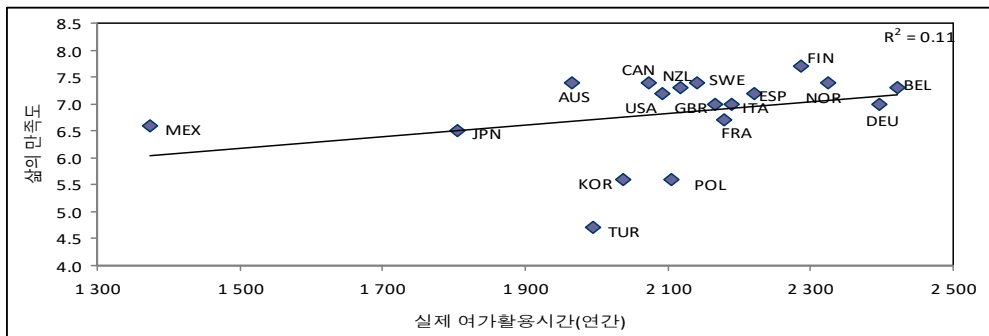
- 주: 1) 유급근로: 전일제 및 시간제 근로시간, 구직활동을 위해 소요하는 시간, 학업을 위해 소요하는 시간.
- 2) 무급근로: 가사일(요리, 청소, 자녀 혹은 오빠오빠가족의 양육과 보호 등).
- 3) 개인활동: 수면, 식사, 음주, 병원방문 등의 개인활동.
- 4) 여가: 취미활동, 게임, TV 시청, 컴퓨터 사용, 오락, 스포츠, 가족이나 친구와의 만남 등.

자료: OECD(2009),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 1) 포괄적 여가시간은 1일 24시간 중 개인활동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난 멕시코의 42.7% 수치를 비교대상 국가별 개인활동 비중에서 차감하여 여가시간에 포함시켜 조정한 수치를 의미함.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개인활동 비중은 44.8%에서 42.7%(멕시코의 해당 수치)를 차감한 2.1%를 기존 여가시간 21.6%에 포함시켜 23.7%라는 수치로 조정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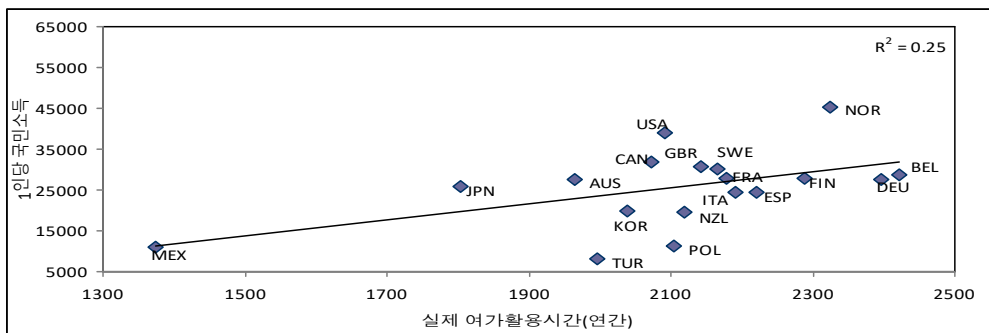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1일 중 유급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21.6%(5.2시간)로 비교대상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이는 일본, 멕시코 등 비교적 장시간 근로체제를 유지하는 노동시장 특성을 보이는 국가들에서 유사하게 나타남.
 - OECD 회원국(조사대상 18개국)의 여가시간당 유급근로시간 평균 비율은 0.8로 나타남. 멕시코와 일본, 한국을 제외한 15개국이 여가시간당 유급근로시간 비율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근로보다 여가활동이 선호되는 것으로 분석됨.
- OECD 18개 회원국의 연간 여가활용시간과 삶의 만족도 및 1인당 국민소득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체로 여가활용시간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국민소득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KLI]**

[그림 2] 여가시간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주: 실제 여가활용시간은 국가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기초한 것이며, 삶의 만족도는 갤럽의 2006년 집계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자료: OECD(2009),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그림 3] 여가시간과 1인당 국민소득과의 관계



주: 호주, 뉴질랜드, 폴란드의 1인당 국민소득자료는 2005년 자료를 활용한 것이며, 멕시코는 2006년 4월 1인당 GDP를 토대로 추정된 자료를 활용하였음.
 자료: OECD(2009),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표 1〉 OECD 회원국의 여가시간당 유급근로시간 비율

(단위 : %)

	유급근로(a)	무급근로	개인활동	여가(b)	기타	a/b
멕시코	20.3 (4.9)	20.6 (4.9)	42.7 (10.2)	15.8 (3.8)	0.7 (0.2)	1.3
일본	20.7 (5.0)	13.0 (3.1)	46.1 (11.1)	18.0 (4.3)	2.2 (0.5)	1.2
한국	21.6 (5.2)	10.2 (2.4)	44.8 (10.8)	21.6 (5.2)	1.7 (0.4)	1.0
뉴질랜드	15.6 (3.7)	16.7 (4.0)	48.3 (11.6)	18.7 (4.5)	0.7 (0.2)	0.8
프랑스	14.9 (3.6)	14.9 (3.6)	49.2 (11.8)	18.4 (4.4)	2.5 (0.6)	0.8
호주	15.7 (3.8)	17.6 (4.2)	45.6 (11.0)	19.6 (4.7)	1.5 (0.4)	0.8
캐나다	18.3 (4.4)	14.7 (3.5)	43.3 (10.4)	23.1 (5.6)	0.6 (0.1)	0.8
미국	17.0 (4.1)	14.8 (3.5)	45.0 (10.8)	21.7 (5.2)	1.5 (0.4)	0.8
스페인	16.6 (4.0)	14.9 (3.6)	46.4 (11.1)	21.7 (5.2)	0.3 (0.1)	0.8
스웨덴	17.4 (4.2)	14.4 (3.5)	43.4 (10.4)	23.7 (5.7)	1.0 (0.2)	0.7
이탈리아	15.2 (3.7)	16.1 (3.9)	46.8 (11.2)	21.1 (5.1)	0.8 (0.2)	0.7
폴란드	15.3 (3.7)	17.4 (4.2)	45.4 (10.9)	21.4 (5.1)	0.5 (0.1)	0.7
터키	13.1 (3.1)	16.0 (3.8)	46.7 (11.2)	18.7 (4.5)	5.4 (1.3)	0.7
영국	15.9 (3.8)	15.8 (3.8)	44.0 (10.6)	23.4 (5.6)	0.9 (0.2)	0.7
노르웨이	16.6 (4.0)	13.8 (3.3)	42.8 (10.3)	26.5 (6.4)	0.3 (0.1)	0.6
핀란드	15.4 (3.7)	14.5 (3.5)	43.8 (10.5)	25.0 (6.0)	1.3 (0.3)	0.6
독일	13.6 (3.3)	15.2 (3.6)	45.1 (10.8)	25.0 (6.0)	1.1 (0.3)	0.5
벨기에	12.8 (3.1)	14.4 (3.4)	45.7 (11.0)	24.7 (5.9)	2.4 (0.6)	0.5
OECD 평균 (18개국)	16.5 (3.9)	15.3 (3.7)	45.3 (10.9)	21.6 (5.2)	1.4 (0.3)	0.8

주 : ()안은 시간을 의미함.

자료 : OECD(2009), *Society at a Glance: OECD Social Indicators*. <http://dx.doi.org/10.1787/548528164155>를 이용하여 재구성.